



롯데자산개발·롯데물산 임직원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롯데자산개발과 롯데물산은 임직원들이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우를 응원하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그룹 창립 52주년을 맞아 롯데자산개발 임직원 26명, 롯데물산 임직원 26명 등 총 52명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광영 롯데자산개발·롯데물산 대표이사(앞줄 가운데)와 임직원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NH농협은행,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의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자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에서 이대훈 농협은행장(오른쪽) 등 임직원을 대표해 강문철 소비자보호부장(왼쪽)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프랜차이즈산업협, DB손보와 가맹점 안심페업보험 MOU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DB손해보험, 더매칭플레이스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심페업보험'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김철민 더매칭플레이스 대표(왼쪽부터),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박철 DB손해보험 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아모레퍼시픽 서성환 선대회장 16주기 추모식

아모레퍼시픽은 9일 전국 사업장과 장원기념관에서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사진) 영면 16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아모레퍼시픽 임직원들은 추모식을 통해 창업자의 뜻을 기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원대한 기업' 비전 달성 의지를 다졌다. 이번 주에는 아모레퍼시픽 원로 임원과 신입 탑승급 직원들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인의 추모공간, 장원기념관을 찾아 선영에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열린 2019년 시무식 이후



에는 아모레퍼시픽 현직 임원들이 장원기념관을 방문해 추모식을 진행했다. 올해 추모식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세계본사 장원(莊源)이 수상한 '2018 한국 건축문화 민간부문 대상' 상패와 2018년 무역의 날 기념식을 통해 받은 '사역 불수출의 탑'이 봉정됐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코카콜라 새해 첫 캠페인 모델로 배우 박보검

코카콜라가 새해 첫 캠페인 모델로 배우 박보검(사진)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청량한 미소를 통해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박보검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여심을 강타하는 훈훈한 비주얼과 정통 멜로·감성 연기를 통해 '국민남친'의 닉네임까지 얻는 등 새해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4년부터 새해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음을 전하



는 '마음을 전해요(Share a Coke)' 캠페인을 선보여온 코카콜라는 올해 박보검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소비자들을 격려하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눈부신 소비자들에게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며 희망찬 새해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TV광고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영원한 생명-코쿤



진성오 소장의 심리학책

최근 필자는 치매나 나이 드신 분들의 신경심리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 역시 늙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아니 늙는 게 좋지 않다기보다는 병들고 기력이 약해지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노화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기억의 망각이다. 자신이 알고 있던 삶의 경험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좀 아이러니 한 것은, 망각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화로 인한 기억 상실은 현재의 시간부터 가까운 것들을 먼저 잊게 만든다. 현재의 기억부터 사라지는 것은 마치 바다의 생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불리는 기관이 기억의 관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새로운 기억들을 저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 관문의 노화로 새로운 것이 저장되지 못하면서 점점 과거의 기억들이 사라져 지금 시간이 언제인지,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얼굴이었던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상이 심한 분들은 기억력에 관련된 검사를 할 때 남은 기억이 20대 초반이어서 자신이 78세인 나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어렸을 자신이 나이 먹었다는

것은 알지만 남은 기억의 한 조각은 20대 초반의 어떤 시간에 남겨져 있게 된다. 그래서 검사 도중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서 기다리니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 여쭙보면 58세라 말한다. 이미 돌아가신 지 50여년이 넘었는데 할머니는 그 시간에 사는 것이다. 노화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젊음과 삶을 꿈꾸기도 한다. 1985년에 나온 '코쿤'이라는 영화가 있다. 알처럼 생긴 큰 캡슐안에 동료 우주인을 150만 년 전쯤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어넣고 태평양 심해에 안전하게 두었다가 다시 데려가기 위해 온 외계인들의 이야기이다. 지구인 형상의 캡데기 안에 영혼의 형태로 빛이 나는 진화한 안드로메다 어린가에서 온 우주인들. 그들의 동료를 담은 코쿤을 잠시 임대한 수영장에 두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앙로원의 장난꾸러기 할아버지 세 명이 몰래 침입하여 마음껏 개구쟁이처럼 수영을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들은 회춘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부인과 애인까지 수영장에 데려와 회춘시킨 뒤 만각한다. 할아버지들은 이러 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우주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도와준다. 우주인이 우주로 떠나기 바로 전, 할아버지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우주인의 고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받는다. 그 중 한 할아버지는 암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부인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담담히 친구들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나머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주로 떠난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불로장생의 해피엔딩 이야기이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코쿤 2편이 나온다. 2편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안드로메다에서 자신들의 아들과 어린 손자가 그리워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시 우주인과 지구를 방문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또 우여곡절이 있는 그저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감동은 아주 짧은 몇 분에 있었다. 영화의 마지막에 주인공인 할아버지는 자신이 늙지 않는 사이에 커버린 손자를 보면서 자신이 다시 우주인의 행성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된다면 자신보다 먼저 자식과 손자가 늙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는 외계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식들이 있는 지구에서 남은 선택을 한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받아드린 것이다. 혼자 사는 영원한 삶이란 어쩌면 죽을 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이 보이는 삶 안에서 같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임을 할아버지는 깨달은 것 아닐까? 가끔 정신이 돌아와 혼자 죽을까봐 걱정하는 치매 할머니에게 20대의 기억만이 남는 망각은 생명이 주는 짧은 축복일 것이다. 그 시간만큼은 돌아갈 집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신의 마음 연구소장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글로벌 문화체험단 프로그램 등 청소년 인재성장 지원 노력 인정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9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유공자 부문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중국 현지 문화와 역사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글로벌 문화체험단', 독서관형형성과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드림도서관', 창작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19회를 맞은 '미래에셋 글로벌 문화체험단'에 참가한 96명의 참가자들이 중국 상해 외탄 금융지구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활동으로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우는 '비전프로젝트',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진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들의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독서교육과 창의교육 주제의 워크숍을 기획해 특강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인사

◆기술보증기금 ◇ 본부장 전보 △서울지역본부 유선열 △인천지역본부 오진석 △경기지역본부 이종배 △충청지역본부 장영규 △부산지역본부 김주형 △대구지역본부 임종학 △호남지역본부 전석문 ◇ 부사장 1급 승진 △경영기획부 이선희 ◇ 부사장 전보 △인재개발원 이의장 △기술평가부 남광일 △성과평가실 이종학 △인사부 김대철 △사회기차경영부 윤재민 △기술보증부 최상규 △보증운영실 손종우 △기술거래보호실 이석중 △벤처혁신사업부 허윤석 △업무지원부 박효중 △ICT운영부 정철민 △리스크관리실 곽효주 △홍보실 양정주 △비서실 송재연 △미래혁신연구소 임선형 ◇ 지점장 1급 승진 △구로 박주선 △사상 김진철 ◇ 지점장 2급 승진 △인현 김영수 △시화 조영길 △강릉 이재현 △충주 장승용 △제주 안재우 △익산 윤용호 △군산 이철현 △목포 김영훈 △광주기술혁신센터 이주환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김영택 △서울서부재기지원센터 박동진 △수원재기지원센터 김재관 △연수파견 이재필 △서울지점(전문직) 김진원

◆한국환경공단 ◇ 부사장 전보 △홍보실장 고광휴 △기획조정처장 안병용 △환경전문심사센터장 정득중 △기후변화대응처장 정동희 △배출권관리처장 이선우 △환경인종검사처장 한상우 △악취관리처장 김형식 △물환경관리처장 서창일 △자원순환처장 이창훈 △폐기물관리처장 김은숙 △환경시설처장 오세철 △상하수도시설처장 김대갑 △환경에너지시설처장 류종대 △생활환경안전처장 이환섭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김장원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김태수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김중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기인간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처장 이형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김진수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홍성우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최홍석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백선재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윤정식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박광규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임규영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장 임종욱

◆매일신문 △편집부국장 김병구 김수용 △동부지역본부장 이준수 △선임기자 김지석 민병곤 이종민 △편집부장 박한환 △편집팀장 조현진 △정치부장 모현철 △경제부장 이상현 △사회부장 정옥진 △체육부장 최창희 △교육학술부장 이석수 △경주담당 김도훈 △영천담당 강선일 △고령담당 이재수 △울릉 담당 박기호

부음

◆조맹순씨 별세, 강윤열(대신증권 인사부 부장) 형열(재건자교회 목사) 부열(창업지도강사)씨 모친상, =9일 오후 2시 50분,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8시. (055-214-1900) ◆정준채씨 별세, 이근희(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씨 부부상= 9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1599-3114 ◆곽상찬씨 별세, 김운선(충청투데이 중평·진천 담당)씨 장인상 = 8일 오후 8시 30분,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43-210-5444)